

스파이가 된 철학자의 철학 정탐 보고

이종관 지음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

조형준

번역가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 철학 교수가 스파이가 된다고? 니체와 하이데거와 훗설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그리고서도 신세대들에게 이 소설을 읽어달라고 '유혹'한다고? 무슨 통속소설 아냐? 요즘 아무리 영상소설이 유행이라지만 소설치고 《나를 사랑한 스파이》 같은 영화만큼 재미있을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철학소설'의 필자가 훗설을 전공한 철학교수라는 소개글을 보고 잘해야 비너스의 몸매에 그 못생긴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들여놓거나, 아니면 한번도 죽을 상을 꾀지 않은 칸트의 얼굴에 신세대들의 화장품을 잔뜩 덧칠해 놓은 기괴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철학적 성찰의 진솔한 요약

왜 사람들은 글을 쓰는가? 돈을 빌려 달라는 간절한 사정이 편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도스토예프스키처럼(전부는 아니지만) 원고료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동기도 있고, 톨스토이처럼 글쓰기는 구원의 종교이기도 하다.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이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루스트처럼 글쓰기는 현실이 너무나 아파 과거의 꿈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현실세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종관 교수도 철학에 관한 소설을 써야 할 무슨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

언젠가 비엔나의 한 철학자가 하이데거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끝낸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한 농부가 강연 내내 줄곧 다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았다면서 설명이 아주 명료하게 진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시골 구석의 농부까지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동시에 난해한 철학자 하이데거에 관한 철학강연을 이해했으니 기뻐할 만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농부가 바로 하이데거였다고 한다. 물론 하이데거에 관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존재와 시간》 이후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 철학과 미셸 푸코를 비롯한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이르기까지 마르티지 않는 사색의 수원지 역할을 해 온 하이데거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 철학의 이중적인 운명을 생각하게 한다. 즉 모든 짐승이 피리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 예술의 이상이라면, 평범한 사람도 지극히 난해



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철학적 논리에 대해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만드는 것이 철학의 이상이라.

하지만 살아가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끊임없이 망각하도록 유도하는 현대의 기술문명, 이러한 망각의 역사를 한층 세련화시키고 은폐시킬 뿐인 철학(형이상학), 그리고 노동과 예술이 어우러졌던 그리스적 예술(art)로부터 인간의 노동을 단지 기술(technic)로 전락시켜버린 현대의 문명을 버리고 하이데거는 궁벽한 한촌(寒村)의 농민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즉 철학과 소박한 농민의 삶이 통합되기는커녕 철학의 자리는 이제 깊은 산골의 오두막으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마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처럼 말이다. 또는 동양의 죽림칠현처럼, 니체의 말대로 '신'이 죽고, 구조주의자들의 말대로 '인간'도 죽은 이상 철학이 도대체 무엇에 쓸모가 있다는 말인가?

이종관 교수의 철학소설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는 이러한 비판과 자괴감에 대해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 '신'이 죽고 형이상학이 망각의 역사를 은폐해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철학이고, '인간' 또는 '주체의 죽음' 이후의 인간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철학이라는 점을 니체, 하이데거, 훗설, 푸코, 라캉의 입을 빌려 진술하고 정곡을 찌르며 요약해 나간다.

현대철학의 핵심주제 전달

이 책의 주인공인 '그'는 철학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철학적 사색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 대학강단에 서지만 사방에서 좌절을 맞본다. 먼저 삶의 깊이와

이종관 교수의 철학소설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는 가볍고 경쾌한 문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현대철학의 핵심주제에 대한 비판과 통찰을 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한다. 스파이가 된 철학자의 포스트모던한 모험을 통해 서구 철학사의 비밀과 속내를 재미있게 정탐해놓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철학적 사색의 기쁨을 맛본다.

넓이, 그리고 진지하고 반성적인 사색을 유도하는 철학은 가벼움과 정신없는 질주, 욕망과 노출욕의 시대적 흐름에 의해 비참한 배신감을 맛본다. 조금이라도 자극적이고 농담처럼 들리지 않으면 눈에 권태와 피로의 기색을 드러내는 신세대 앞에서 철학강의는 잘하면 '연출된 쇼'가 되고 못하면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게다가 돈이 되는 지식, 권력과 두 손을 꼭 잡고 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찬미하는 친구와의 만남은 그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대학 때 사귀 여자인구의 갑작스런 죽음은 인간존재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든다.

게다가 평생을 지식과 학식을 존중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아버지가 너무도 우스꽝스럽게 사기를 당하는 모습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사랑도, 우정도, 명예도 더구나 철학적 지혜도 아니며 바로 권력에의 의지라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게 한다. 철학교수답지 않게 경쾌하고 재기발랄한 문체로 글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필자의 글솜씨를 따라 진행되는 전반부는 대강 이런 식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통해 현대철학의 핵심적인 고민이 알기 쉽게 정리된다. 즉 니체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진리의 문제, 권력에의 의지 문제, 그리고 하이데거가 무겁게 제기하는 존재의 의미 문제, 또 여기에 남녀의 사랑과 여성의 여성성에 관한 문제가 끼어드는 동시에 이 모든 문제가 한군데로 엉켜든다.

이제까지 가볍고 경쾌한 문체를 통해 '위명업'을 한 독자들은 본격적으로 현대철학의 핵심주제에 대한 20세기 예언자들의 비판과 고성과 통찰을 듣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전통적인 의미대로 하면 어려운 이야기를 쉽

고 깊이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부터 철학교수로서 이종관 교수의 이야기 솜씨가 빼어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철학적 토론과 제즈, "하늘이 내린 빗물, 땅이 영글어낸 포도, 유한한 인간, 그리고 그에 의해 기러지는 세계의 신성함이 모여드는 작품"인 포도주를 통한 철학적 사색, 제즈와 블루스 등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는 현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철학적 반성 등이 어우러지면 그 어렵고 난해한 20세기의 철학이, 아니 사색과 환경과 존재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20세기의 실상이 두 눈에 확 들어온다. 이리하여 우리는 사색의 파탄을 선언하고, 스파이가 된 철학자의 포스트모던한 모험을 통해 근대 이후 서구 철학사의 비밀과 속내를 쉽고도 재미있게 염담하고 정탐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철학적 사색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처럼 일상의 경험을 통해 많은 철학적 지식을 쌓고 있으나 추상적인 원리라면 딱 질색인 보통사람들에게 알맹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학적 지혜의 핵심을 과연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재미있어야 한다'는, 이 찰나적 소비와 교양되지 않은 무분별한 감상 시대의 핵심적인 화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야기의 운명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종관 교수는 '알타 협정'을 체결한다. 즉 알타 협정이 물질적 소비와 다원화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와, 이념과 원리를 강조해온 사회주의의 진영의 평화공존을 모색했듯이 이 '철학소설'은 가벼운 감각과 정신없는 질주 시대의 소비문화의 유혹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자꾸 브레이크를 걸려 하고, 자못 심각하고 싸늘하게 보이는 이념의 세계에는 풋풋한 감각의 입김을 불어넣으려 한다.

이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나? 철학교수가 협상의 당사자라는 생각에 지레 얼굴을 찌푸리고 지루하겠지 하는 선입견만 갖지 않는다면 협상은 대성공일 수 있다. 그리하여 훗설에 대해 이 철학교수에게 질문할 때는 먼저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훗설의 속내 깊은 성찰을 묻고 나서 그의 철학에 대해 질문하면 된다. 또 거꾸로 술을 한잔하고 싶을 때는 하이데거의 '포도주론'을 들으며 하이데거 철학에 관한 일급 정보를 빼내면 된다.

새물결/A5신/256면/6500원